



I. 평가결과 요약

1. 국문요약

가. 사업개요

- 사업명 : 몽골 시각장애인 바리스타 일자리 사업(2017-2018/250백만원)
- 사업 기간/ 총 사업예산 : 2017-2018년/ 250백만원
- 사업 추진배경 및 목표
 - 한국정부는 SDGs의 포용성 가치 실현과 장애주류화 추진 흐름에 따라 2013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지원 대상에 장애인을 추가하고, UN 장애인 권리협약 당사국, UN ESCAP 인천전략(2013-2022) 이행 주도국으로서 장애와 개발이슈를 연계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몽골정부는 ‘국가개발전략(NDS) 2007-2021’에 ‘MDGs 달성 및 몽골 국민의 총체적 발전 제공’ 달성을 위한 전략을 명시하며 실업 문제 해결 및 빈곤감소를 위한 국가적 목표를 천명함. 2018년 몽골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몽골 장애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3.9%(105,730명)그 중 시각장애인은 15.4% 정도를 차지함. 몽골 사회복지노동부(Ministry of Social Welfare and Labour)에 따르면 장애인의 약 80%는 일을 할 수 있는 상태이나 장애인 고용 비율은 26.4% 수준으로, 상당수의 장애인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몽골 정부는 사회복지 분야의 지원을 늘리고 장애인 기본법과 할당제를 통한 장애인 기본 권리를 보장하는 등 장애인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나. 평가개요

- 평가 기간 : 2019.8.25.(일)~2019.8.31.(토)
- 평가 목적 : 사업종료 후 당초 계획한 목표의 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사업 기획의 적절성, 사업 수행과정의 효율성, 사업 효과성 및 사업성과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 향후 유사사업 추진을 위한 시사점 및 교훈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음.

- 평가 범위 : 변화이론에 근거하여 평가 대상사업의 PDM을 재점검하여 평가 매트릭스를 설계하고, 사업의 산출물부터 단기, 중장기 성과, 간접 성과 등 동 사업의 활동을 통해 도출된 성과를 점검함.
- 평가 기준
 - 평가팀은 OECD DAC 평가 기준 중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지속가능성 부문을 준용하고 범분야 이슈 중 장애 및 인권 부문의 국제적 평가 항목에 근거하여 평가 매트릭스를 설계하고 평가함.
 - 평가기준별 세부 평가 질문은 본 사업의 변화이론에 따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PDM과 사업 약정이행결과서를 통해 확인된 성과 외 추가 확보가 필요한 성과와 정성적 성과를 중심으로 작성함.
- 평가 방법
 - 문헌조사와 변화이론에 근거하여 설계된 평가 매트릭스를 바탕으로 사업 수행과정 및 성과 평가, 결과 종합분석을 위해 사업 자료를 포함한 주요 문헌 조사, 국내외 주요 이해관계자 면담조사 및 Focus Group Interview(FGI), 현장실사 등 정성적 기법을 활용함.
 - 몽골 정부의 장애인 관련 정책 및 사업 관련 문헌조사를 통해 현지 정부의 전략 및 사업현황 파악 → 국내 관계자 면담 → 국내외 사업담당자 및 평가단 토의를 통해 사업성과 공동 점검 → 현장 실사 및 현지 관계자/사업 수혜자 인터뷰 및 FGI 실시

다. 평가팀 구성 및 체계

- 평가팀 구성
 - 시민참여평가단은 일반 시민과 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해 참여적 평가수행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KOICA 내외부 전문가와의 협업으로 시너지효과 제고 및 결과 활용 가능성, 제언의 실효성 향상을 도모하였음.
 - 또한 종료평가 수행과 더불어, 개도국 현장과 주민의 삶, KOICA 및 우리 시민사회의 역할을 국민에게 보다 친밀하게 전달하고자 문서(평가보고서)가 아닌 사진을 매체로 활용하였으며, 이를 위해 사진작가도 평가단 일원으로 전 과정에 참여하였음.
 - 평가팀 구성 및 수행 업무는 아래와 같음.

| 표 1 | 평가팀 구성 및 업무분장

구 분	성 명	소속 및 직위	수행 업무
KOICA	김진경	시민사회협력실 과장	- 현지조사 및 평가 총괄 - 평가 수행 및 보고서 작성 - 결과 보고
	허은	시민사회협력실 직원	- 평가단 운영 및 관리 - 평가 수행 및 보고서 작성
	정은주	경영혁신기획팀 인권전문관	- 인권 기반 평가 수행 및 보고서 작성
KOWORKS	강소라	민관협력사업 지원센터 대리	- 평가워크숍 운영 및 관리 - 평가 수행 및 보고서 작성 - 사진전 및 평가결과 공유회 운영
외부 전문가 그룹	손혁상	경희대 공공대학원 교수	- 평가 총괄 - 기술자문 제공 - 평가 수행 및 보고서 작성 - 평가워크숍 수행
	임종진	(주)공감아이/사진작가	- 사진 촬영
	하동훈		
시민 평가 위원	강예린	서울대학교 석사과정생	- 평가 공동 수행 - 관련 자료 수집 및 보고서 작성 - 평가결과 발표
	김민욱	영남대학교 학부과정생	
	유승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문가	
	이상은	환경대학교 연구원	
시민사회 관계자	이경숙	아시아재단 본부장	

- 평가팀은 KOICA 내외부 전문가 및 시민사회관계자 구성 확정 후, 공모를 통해 선발하였음. 평가단은 7월부터 약 2개월 동안 6회의 사전스터디를 통해 평가 대상 사업 분석, 사업 논리모형 및 성과모형 점검, 평가 매트릭스 개발을 완료 하였으며 8.25일부터 8.31일까지 현지조사를 실시함.

라. 평가결과

● 적절성

- (전략 부합성) SDG 4.5와, 8.5의 목표에 부합하도록 설계된 사업으로 평가됨. 몽골의 <장애인 인권에 관한 법률> Chapter 5의 Section 17, <직업교육 및 훈련에 관한 법률> 12.4, 25.4, <노동법> Article 111에 부합함. 또한, 코이카의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사업 이행 및 성과관리 가이드라인과 부합함.
- (기획 적절성) 기존 몽골 내 시각장애인의 직업영역은 안마사와 쇼핑백 제작 등 소수의 직업군에 제한되어 있음. 몽골 시각장애인의 제한되어 있는 직업영역에서 새로운 영역을 창출한다는 점과 몽골의 커피문화가 확산 되고 있다는 점에서 바리스타에 대한 수요가 지속 확대되고 있는 반면 관련 기술훈련을 제공하는 훈련센터가 많지 않음을 고려할 때 동 사업의 기획은 시기적절하다 판단됨.
- (이해관계자 수요 및 역량) 기존 몽골 내 시각장애인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음을 고려할 때, 본 사업은 몽골시각장애인협회의 기존 사업영역을 확장하는데 기여 했다고 판단됨. 사업종료 후, 몽골시각장애인협회는 본 사업을 지속하기를 원하고 있으나, 실제 해당 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인건비 등 재정적인 여건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효율성

- (예산 관리) 사업 약정예산 250,000,000원 대비 실제 집행 249,445,290원으로 99.78% 집행률을 보임. 실로암은 사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수혜자 중심의 역량 강화 및 시각장애인 카페 운영을 위한 전문 인력들을 추가 투입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관련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 현지 사업운영 및 예산을 감액함. 사업예산 내에서 비교적 효율적으로 집행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사업추진 일정 관리) 사업계획 대비 이행 결과는 약 1개월 정도 순연 되었으나, 사업종료 시까지 계획된 활동을 모두 수행하였음. 다만, 2차년도의 바리스타 직업훈련 및 카페 현장체험은 1차년도와 달리 한 달 간 중단 되었으며, 8월에 교육을 재개 하였는데, 이는 몽골 현지 여름휴가 기간으로 교육의 원활한 진행이 불가능함에 따라 1차년도 사업수행을 통한 경험을 바탕으로 2차년도에 반영한 것임.

- (산출물 산출 시기) 카페 운영 착수 전 인테리어 공사 및 사전교육이 진행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카페 운영이 시작된 이후에 진행 되었으며, 산출물이 계획에 따라 적시에 산출되지 않아 카페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됨. 이 외 직업 훈련실 구축 및 기자재 지원, 훈련 강사 양성에 대한 성과는 100% 달성함. 다만, 본 사업에서 강사의 역할과 중요도 및 강사 훈련을 위해 투입된 예산을 고려할 때 1명의 강사 배출은 사업 효율성을 매우 저해하는 요인으로 평가됨.

● 효과성

- 시각장애인 바리스타 직업 훈련실 구축
 - (훈련실 인테리어 공사) 시각장애인의 경우 색깔에 따라 사물의 구분이 쉽지 않을 수 있으므로 훈련 장비와 기자재가 놓인 작업대를 구분하기 쉽도록 밝은색으로 설치하였음. 훈련 장비도 시각장애인의 동선과 안전을 고려하여 배치함.
 - (기자재 지원) 시각장애인 바리스타 훈련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훈련실 내 제공된 기자재는 총 15종 34개 품목이며,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돋보기, 확대경과 같은 기자재를 추가로 구비 하였음. 제공된 기자재 중 지속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한 에스프레소 머신의 경우 몽골 현지 에스프레소 머신 수입업체를 선정하여 구매함으로써 사후관리에 용이하도록 하였음. 특히 에스프레소 머신에 사용되는 소모품의 경우 현지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간접적 재정지원의 효과가 있음.
- 바리스타 훈련 강사 고용 및 역량 강화
 - (바리스타 훈련 강사 배출) 사업기간 동안 총 1명의 훈련 강사를 고용, 양성 하였으며, 2년의 사업기간 동안 훈련 강사는 이탈 및 변경 없이 지속적으로 시각장애인 훈련생을 교육하였음. 그러나 해당기간 동안 강사가 한 명만 양성된 점은 본 사업의 가장 큰 위험요인이었으며, 효율성 및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도 적절치 않았다고 판단됨. 향후 사업에서는 최소 2명 이상의 훈련 강사를 양성하고 강사풀(pool)을 형성할 필요가 있음.
 - (바리스타 훈련 강사 역량 강화) 시각장애인 바리스타 훈련이 실시되기 전 훈련 강사 대상 사전교육을 1회 실시하였으며, 이후 2회의 중간교육과 1회의 현장 심화교육을 실시하여 계획 대비 목표를 초과 달성함.

- 시각장애인 바리스타 양성

- 시각장애인 바리스타 훈련생은 1기부터 4기까지 총 31명이 모집되었으며, 이 중 22명(남 8명, 여 14명)이 수료하여 당초 계획된 20명을 초과 달성함.
- 훈련 수료 후 취업한 훈련생은 총 15명으로, 당초 계획했던 4명을 초과 달성 하였음. 취업생 중 8명은 카페모아, 7명은 일반카페에 취직 하였으나, 근무조건 등에 따라 취업 지속률은 일반카페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확인함.
- 각 기수별 출석률의 경우 1기 93%, 2기 94%, 3기 95%, 4기 93%, 평균 출석률 93.8%로 전 기수 출석률 목표치인 80%를 크게 상회하여 당초 목표 대비 초과 달성함.
- 훈련횟수의 경우 당초 계획 대비 98% 목표 달성하였는데, 이는 사업 계획시 2017년 몽골 대통령 선거와 칭기즈칸 탄신일 등의 국경일이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임. 그러나 휴강 시수만큼 보강이 실시된 것으로 확인됨.

- 바리스타 훈련교재 번역 및 보급

- 본 사업기간 동안 번역 및 보급된 교재는 몽골 최초의 시각장애인용 바리스타 훈련교재로 몽골 시각장애인 바리스타 훈련의 기초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음.
- 강사용 4권, 강사 및 훈련생용 46권, 강사 및 카페취업생 운영교육용 15권, 총 65권이 제작되어 당초 계획인 24권을 초과 달성함
- 그러나 국내 교재를 번역하는 수준으로 진행되어 실제 교재로써 활용도는 높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됨. 이에 사업 활동 중 교재개발이 포함된 경우, 교재의 우수한 콘텐츠 개발을 위해 국내 및 현지 전문가의 실질적 참여가 요구되며, 국내 교재를 단순 번역하기보다 현지 문화 및 독자에 맞게 콘텐츠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 시각장애인 바리스타 카페구축

- 시각장애인 바리스타 카페는 당초 한 곳을 개소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1차년도 사업 이후 훈련비용 및 공사비용 절감 등을 통해 카페 개소를 두 곳으로 확대하여 계획 대비 목표를 초과 달성 하였음.

- 훈련강사 장애인지감수성 향상

- 바리스타 훈련과정에서 훈련강사는 훈련생들의 시각장애정도에 따라 난이도를 달리해야 하는 부분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개인에 맞춘 보충교육을 통해 훈련생 모두 일정 수준의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훈련생과



속도를 맞추며 교육을 실시함. 이를 고려할 때 훈련강사의 장애인지감수성은 강사대상 훈련을 통해 충분히 확보된 것으로 판단됨.

● 지속가능성

- 시각장애인 바리스타 양성 직업훈련

- (인력 및 재정) 시각장애인 바리스타 훈련과정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바리스타 교육 경험이 많고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훈련 강사를 다수 확보하는 것이 주요함. 그러나 본 사업을 통해 유일하게 양성된 강사의 참여가 불확실하고 센터 운영을 위한 재정 준비도도 명확하지 않아 이는 본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평가됨.
- (훈련실 유지관리) 시각장애인 바리스타 훈련실은 바로 실습이 가능할 정도로 깨끗하게 잘 유지·관리되고 있으나 향후 훈련을 재개할 계획이나 재정 확보 등이 명확하지 않아 훈련실 지속 활용 가능성은 일부만 확보한 것으로 평가됨.

- 시각장애인 바리스타 취업 연계 및 고용

- (몽골 정부 전략 및 제도) 몽골시각장애인협회는 장애인직업훈련 및 고용과 관련된 몽골 법률과 지원정책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연수생의 직업훈련수당 등을 활용하고 있음. 2016년 몽골 장애인권리법이 몽골 의회를 통과하여 관련 법령 및 정책들이 마련되었으나, 실제 근로 현장에서는 적용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네트워킹) 몽골시각장애인협회는 훈련생들의 취업률을 제고 하기 위해 협회와 수료생 간의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이는 기존 훈련생뿐만 아니라, 향후 훈련 재개 시 배출되는 훈련생들의 취업창구를 확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평가됨.

- 카페모아 운영

- 아직 자체 수익만으로는 경영 유지에 제약이 있으며, 적자가 발생할 경우 몽골 시각장애인협회가 부족분과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영업이익 적자가 계속될 경우, 향후 카페모아의 지속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카페 입지 선정 시 높은 매출과 수익의 가능성보다는 유지관리 비용 부담의 최소화를 우선 적으로 고려하여 정부 및 공공기관 건물 내로 정하였음. 이는 임대료 및 관리비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독점 운영의 효과도 있어 안정적 카페 운영이 일부 가능함.

● 범분야 이슈

- ‘장애’가 직접적으로 명시된 SDGs 세부목표는 총 7개로 동 사업은 ① 취약계층의 교육 및 직업훈련에 대한 평등한 접근(4.5), ② 장애인지적 교육시설의 설립 및 효과적 학습 환경 제공(4.a), ③ 장애인을 포함한 괜찮은 일자리의 창출(8.5), ④ 장애 등 지위와 상관없는 사회·경제·정치적 통합의 증진 및 확대(10.2)로 4개의 세부목표와 연관되어 있음.
- 참여와 포용
 - 시각장애인의 프로그램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접근성을 제고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시각장애인 전용 라디오 광고, 시각장애인 전용 웹사이트 등을 토대로 홍보 활동을 수행하고, 시각장애인 주택단지 인근에 교육훈련 시설을 설립하였으며, 시각 장애 특성을 고려한 충분한 훈련기간과 훈련과정을 설계함으로써, 참가자가 중도 탈락 없이 교육을 모두 이수할 수 있도록 노력함. 수용성 차원에서 훈련 시설(장소)은(는)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적합하였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음. 그러나 기자재 중 점자용 훈련교재는 이해의 어려움 등이 참가자와 강사로부터 공통으로 지적된 문제점으로 확인되었으며, 훈련용으로 보급된 확대경 모니터의 경우에도 빛 반사로 인해 사실상 훈련생으로부터 활용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기자재 지원 중 일부는 사업 참여자의 프로그램 참여를 도모하기에 적절성, 수용성, 적응성 차원에서 유용하게 활용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음.
- 책무성
 - 시각장애인 바리스타(훈련생) 직원은 건의사항을 카페 매니저에게 전달하고, 카페 매니저는 사업 수행 기관과 협의하는 과정을 수행하고 있음. 이는 사업수행기관이 카페운영 과정에서 참여자와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그러나 카페관리 및 운영에 매우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매니저가 별도의 매니저 교육을 이수한 경험이 없었던 점은, 카페의 지속가능한 운영과 관리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으로 보여짐.
 - 또 다른 도전과제인 일자리 확보 문제는 바리스타 훈련생의 민간 카페 일자리 연계 노력을 통해 평가할 수 있겠으나, 장애인 채용 쿼터시스템에 대한 정부 정책도 몽골 고용시장에서 제대로 준수되고 있지 않는 실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22명의 수료생 중 10명이 구직중인 상황을 고려한다면, 사업수행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카페 이외에도 고용 연계를 위해 정부, 민간부문과의 지속적인



협력방안을 강구하는 등 다양한 대안 마련이 요청되고 있음.

- 비차별과 평등

- 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된 차별적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직업 다양성 보장의 기회를 보장하는데 기여함. 안마사로 귀결되는 극히 한정적인 장애인 일자리 분야를 창의적으로 개선하여 장애인의 일을 통한 자긍심, 성취감, 직무 역량 배양에 기여하였음.
- 2인 1조 직원 배치, (적자 운영과 무관한) 임금 보장 등을 통해 장애인의 우호적인 노동환경 조성과 더불어 카페고객 등 주민과 비장애인과 융합된 지역사회 모습을 지향하고 있음. 이러한 장애 포용적 가치에 중점을 둔 운영 방침은, 사업의 효과성, 수익운영에 따른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 상충된 가치로 보여질 수 있으나, 인권적 관점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우호적인 보호 조치로 평가할 수 있음. 다만 이러한 기관 방침과 가치가 장기적으로도 지속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방정부 등 의무부담자의 책무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상호적으로 보장될 필요가 있음.

- 권한강화

- 사업 참여자인 시각장애인은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시간 관리 등 체계적인 업무 처리 역량, 혼자 지내던 습관을 넘어선 팀 업무 수행 역량, 일의 완성도를 통한 성취감 향상, 안정적인 수익 등을 삶의 변화에 영향을 끼친 중요 요소로 꼽았으며, 바리스타로 활동한 이후 가사 활동 및 육아의 분담, 커피문화를 매개로 한 가족 구성원 간 화합 도모 등 가정 내 긍정적 변화를 밝히고 있음. 이러한 변화는 사업 참여를 통해 시각 장애인이 소속된 사회로부터의 권한, 수동적 주체에서 능동적 주체로의 자존감 향상에 표제 사업이 일정 정도 기여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한편 훈련생들이 비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민간 카페로의 취업을 꺼려하는 이유가, 바리스타로서의 역량과 기술이 아닌 민간 카페의 노동구조 현실에 기인한 것임을 알 수 있었음. 이러한 현실은 기술배양을 통해 개인의 역량이 상승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적 노동 현실로 인해 권한이 제약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함. 몽골 사회의 열악한 노동 현실 개선이 동시에 장애인 권리 증진과도 연계되어 있기에, 몽골사회의 노동현실 개선에 있어서 장애인 권리를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시사점을 제공 해주는 사업이라 할 수 있음.

마. 성과달성도 요약표

목적(Purpose/Outcome)	지표	기준치 (Baseline, A)	목표치 (Targets)	종료선 (Endline, B)	대비 결과 (B-A)	성과검증수단
바리스타 전문기술 습득 및 시각장애인 바리스타 일자리 창출	바리스타 기술 향상도	0	80점	90.88점	113%	바리스타 훈련 기술 평가지
	카페 취업자 수	0	4명	15	375%	카페 바리스타 명단, 이력서
산출물(Outputs)	지표	기준치 (Baseline, A)	목표치 (Targets)	종료선 (Endline, B)	대비 결과(B-A)	성과 입증수단
1 바리스타 직업훈련실 구축	훈련실 완공율	0	1	1	100%	공사 장소
	훈련실 기자재 완비율	0	100%	100%	100%	기자재 수
	훈련 수료인원	0	20명	22명	110%	훈련 수료자 명단
	훈련생 출석누계 훈련 횟수	0	1,536명 320회	1,628명 316회	105% 98%	훈련 출석부 훈련일지
3 바리스타 훈련교재 제작	목자, 점자, 전자, 확대도서 보급 수	0	24건	49건	204%	도서 보급 목록
4 시각장애인바리스타 카페구축	카페완공율	0	1곳	2곳	200%	공사장소
	카페기자재완비율	0	100%	100%	100%	기자재 수
5 바리스타 훈련강사 배출	훈련된 강사 수	0	1명	1명	100%	교육일지 및 결과보고서
6 시각장애인 바리스타 카페운영역량강화교육	역량강화 교육횟수	0	6일	6일	100%	교육일지
	카페영업일수	0	160일	137일	85%	매출현황표
7 시각장애인바리스타 카페운영	카페매출건수	0	400잔	668잔	172%	일일마감지
	취업자인터뷰	0	4명	4명	100%	인터뷰영상

바. 교훈

● 성공요인

- (호응도 높은 직업훈련 직종 발굴) 시각장애인의 직업군은 일반적으로 안마사에 집중되어 있는데, 본 사업은 이러한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관습에서 벗어나 새로운 기술과 직종으로의 도전을 유도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음. 특히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몽골의 커피문화로 바리스타에 대한 현지 수요가 높고, 높은 관심에 비해 훈련된 전문 바리스타가 많지 않은 현지 여건을 본 사업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수혜자의 특성을 고려한 사업활동 구성, 목표 달성을 위한 카페 직접 운영 등 취업가능성을 높임. 본 사업은 시각장애인의 취업가능성을 입증하고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로 오는 개인과 가정, 사회의 변화 가능성을 보여주는데 더 큰 의미가 있는 사업임.
- (몽골정부의 적극적 협조) 사회복지노동부, 선거관리위원회 등 몽골 정부 유관 기관의 협조는 사업의 주요 활동인 카페모아 개점 및 운영에 핵심적 요소였음. 본 사업을 위해 제공할 수 있는 직접적인 예산은 없었으나 임대료 및 관리비 간접 지원, 관내 부서들이 각종 회의, 모임 등에 카페모아의 케이터링 서비스 이용을 장려하는 등 매출을 올리고 운영을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음. 특히, 사회복지부는 관내 공간을 거의 무상으로 제공하여 카페모아 1호점의 입점을 도왔으며 이는 이후 2호점 개점에도 간접적 영향을 주었으리라 판단됨.
- (사업수행기관의 경험) 본 사업 수행기관인 실로암은 바리스타 훈련 관련 전문성과 한국에서의 시각장애인 바리스타 카페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몽골 최초 시각장애인을 위한 바리스타 직업훈련교육을 기획하고 운영하였음. 특히 장애인을 고려한 실습 환경, 우수한 강사 확보 및 사전 훈련을 통해 강사의 장애인지 감수성 제고, 학생 수준별 맞춤 교육 실시 등은 일반 카페에서도 인정하는 실력있는 바리스타를 배출하는데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함. 위의 요건은 장애인 대상 유사사업 수행 시 적용할 사항으로 판단됨.

● 개선요인

- (지속적인 역량강화 훈련 필요) 본 사업을 통해 개점한 카페모아의 효율적 운영과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직무교육 제공이 요구됨. 특히 커뮤니케이션, 팀워크, 직원 관리, 홍보, 마케팅 등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을 제안함.

- (교육 교재 개선) 몽골 시각장애인 훈련생에 적합한 바리스타 교재 보완이 요구됨. 교재 내용에 있어 몽골의 커피 역사와 현지 커피문화를 반영하고,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훈련생과 현지 강사를 위해 영어 사용을 지양하고 가능한 온전히 몽골어로 교재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또한, 시각장애인이 확대 모니터를 활용하지 않고도 볼 수 있는 활자체로 교재를 보완한 것을 제안함.
- (훈련생 취업 지원) 바리스타 교육을 받은 훈련생의 취업 확대를 위해 적극적·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현재 일반카페 취업률이 저조하고 카페모아를 통한 고용창출은 한계가 있는 바, 시각장애인협회 차원의 일반카페 대상 적극적인 홍보와 효율적인 취업 관리 지원이 필요함. 향후 훈련 재개를 통해 훈련생을 지속 배출할 예정인바 이들의 취업을 위해 일반카페와의 협업 강화 및 이력서 작성 지원, 면접 동행 등 취업지원 활동 실시를 제안함.

● 제언

- (카페 접근성 개선) 몽골 정부는 장애인 고용확대 관련 정책 수립 후 장애인 취업에 대해 우호적이므로 다른 정부기관들과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함. 그러나 정부 건물 내 입점한 카페모아는 운영상의 안정성을 일부 확보한 반면 정부 근무시간과 주 고객층(공무원 및 방문자)에 따른 매출 확대에 한계점도 갖고 있음. 실로암은 한국에서의 경험과 교훈을 잘 살려, 민간 투자와 후원을 통해 상권이 우수한 지역에 카페모아 개점을 모색해 볼 것을 제안함. 현재 많은 바리스타 훈련생들이 취업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고 향후 시각장애인협회의 자체 사업으로 더 많은 바리스타들이 배출 될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더 많은 카페모아 지점이 개설되고 높은 매출과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 보다 많은 시각장애인 바리스타들이 취업에 성공하게 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시각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변화될 것으로 기대함.